

동면하지 않는 도마뱀

심은섭 (2006년 제2회 5·18문학상 수상작)

비상하려던 고층빌딩 숲 속 목각새들, IMF교 종파에
감염되어 넥타이를 풀었다
통장계좌를 타고 들어온 푸른 몸값 몇 장에
아내는 치매 걸린 문풍지였다
방패연처럼 아이들을 하늘 높이 날리려면
허공을 문 도마뱀이 되어야 했다
골목길 하나 보이지 않는 절벽
자폐증을 앓던 도마뱀의 다리는 늘 절름거렸다
벽은 외로운 사람들의 섬, 그래도
절벽을 숭배하지는 않았다
옆구리에 찬 녹 쓴 페인트통과 자루 빠진 붓을 들고
공중으로 달리던 태양이 낮 달을 만날 때까지
나무 한 그루 없는 절벽을 산책했다
눈물 흘릴 구멍 하나 없는 절벽산책 길에
박달 나무로 짠 동창東窓의 창틀을 끼우고
어둠에 박힌 보석, 가로등을 세우고
눈썹 속에서도 피는 변산바람꽃을 그렸다
혼돈 된 절벽으로 하얀 단색의 골목길이 나고
90° 낮아진 벽의 허리
녹 쓴 통장에서 투구를 눌러쓴 눈썹밥이 빠져나간 자리에
푸른 지폐들이 모여 수근거렸다
지갑은 철기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이동했다
절벽으로 산책을 끝낸 페인트 공
동면하지 않는 완벽한 도마뱀이었다